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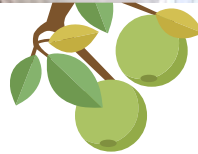
농업인 칭찬 릴레이

함평군 『이리네 농장』 ‘최정일 대표’

글 이수영 · 최정일 사진 이수영







농사 경력은 어떻게 되나요?

2011년 4월에 함평으로 내려와서 한 2년 정도 적응기를 빼면 약 5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농사를 짓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처음에 장모님이 폐암 말기진단으로 1년 6개월이라는 시한부 선고를 받으면서 바로 아내까지 암수술을 3번 정도 하게 되었습니다. 아픈 아내를 지켜보며 건강 하나만을 생각해 장모님의 고향이자 아내 할머니의 집인 함평을 선택해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계획 없이 무작정 내려와서 지내다보니 자연스럽게 농사를 시작하게 되고 요리를 좋아하다보니 농산물을 요리해서 식구들과 먹곤 했는데, 이게 농사를 시작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어떤 농사를 짓고 있습니까?

그 작목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현재 대표작물로는 미니밤호박과 백향과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미니밤호박은 농업기술센터 교육을 가서 알게 된 작물로 이리네농장 최고의 매출이 되는 작물이기도 하구요.

백향과는 2014년 전남정보화농업인 교육부장을 하고 있을 때 사무처장으로 있던 동생이 백향과를 재배하는데, 옆에서 지켜보니 앞으로의 시장변화를 봤을 때 가능성이 있는 과일이라고 생각해 재배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농업이란?

‘내 자신을 속이지 말자~~’

이게 제 농사 철학입니다.

내 자신을 속이고 농업을 하게 되었을 때, 그 농산물을 사먹는 고객들을 속이고 파는 것이기 때문에 신뢰를 저버리는 농사꾼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과 고객을 속이지 않고 농사를 짓고 싶습니다.

농사가 좋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또는 싫을 때가 있다면?

‘구속된 자유?’ 말이 너무 어렵나요?

어느 누구로부터 구속을 받지 않고 여유롭게 즐기면서 할 수 있는 게 농사라고 봐요.

하지만 농사를 짓고 있는 한 농사에 적지않은 시간을 뺏길 수밖에 없겠죠~. 농사가 싫기보다는 너무 힘들어요~ (웃음).

농사를 지으면서 보람되었던 에피소드는?

아무래도 내가 수확한 농산물로 가족을 위해 요리해줬을 때, 그 요리를 먹고 장모님과 아내가 행복해 할 때가 가장 보람되고 즐거웠어요.



농사를 지으면서 어려운 점과

꼭 필요한 게 있다면 무엇인가요?

농부들이라면 누구나 고민인 게 저도 고민입니다.

바로 인력난이죠. 대부분의 농사는 저 혼자 짓고, 수확할 때만 인부들을 쓰는데 혼자 짓는 농사가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현재 9,240㎡ 정도 되는 땅에서 미니밤호박과, 백향과 그리고 양파 등 농사를 짓고 있는데, 작목 수를 늘리고 좀 더 규모도 확장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농업 교육을 들으면서

가장 도움이 되었던 교육이 있었나요?

아무래도 정보화교육이 아닐까 합니다.

처음 시골로 내려와 적응기간을 거치고 농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할 때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도시에서 생활해 왔던 아내와 제가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었으니깐요~. 그런 저에게 정보화교육은 귀농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시골에 대한 농사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면서 새로운 판로와 다양한 소통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앞으로 도전해 보고 싶은 작목이 있나요?

국산체리를 하고 싶습니다. 고정고객을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는 저로서는 새로운 작목을 선택하는데 있어 판로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현재 함평에서 아는 지인분이 재배하고 있는데 재배하기도 수월해 보이고 수확시기도 5~6월이라 모든 면에서 도전해 볼 만한 작목인 듯 합니다.

존경하는 인물이나 롤모델은 누구이며

이유는 무엇입니까?

함평으로 귀농하신 유수환 대표님입니다.

한손을 잃은 장애를 가지고 계시지만 매사에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항상 밝고 여유를 즐기며 농업에 대한 자부심도 대단하신 분입니다. 저도 농사일을 이분을 통해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20년 후 어떤 농부가 되어 있을지

미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농업과 예술의 만남~~』 저희농장 슬로건입니다.

미술과 공예를 전공한 아내와 농사를 짓는 남편.

농업과 예술이 만나 아주 멋진 콜라보를 이루는 ‘이리네농장 지기’가 되어 있을 것 같네요. 🌻



우리 전남 농업인을 칭찬 합시다

소개하고 싶은 칭찬 릴레이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광양의 이대진 대표님입니다.

‘이대진 대표’를 뽑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젊은 나이에 시골에서 부모님을 도와 백향과 농사를 지으며 직거래 판매를 전담하면서 생산에서 판매에 이르기까지 진취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항상 열심히 사는 모습이 좋습니다.

칭찬 이유는 무엇입니까?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좋고 생각과 함께 바로 실천으로 옮겨 행동하는 모습은 비록 나이는 형이지만 본받고 싶은 부분입니다.

최정일 대표가

다음번 이대진 대표에게 전하는 칭찬 메시지

일 년에 몇 번 보지는 못하지만 담에 만날 때 까지 건강하고 하는 일도 지금처럼 열심히 해주길 바란다. 항상 옆에서 응원할게~ 화이팅!!!